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대강절 첫주

오늘은 대강절 첫주입니다.

2. 12월 행사안내

12월17일 (토): Carcano감독 교회방문.

12월25일 주일 저녁, 성탄 축하 예배

12월31일 송구영신예배

1월1일 신년예배

3. 대강절 설교안내

4주에 걸쳐 대강절 특별 말씀을 준비합니다.

둘째주: 기다림2, 셋째주: 하늘엔 영광, 넷째주: 평화의 왕

4. 남선교회모임

홈리스 사역을 위해 이번주 금요일에 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5. 목회협조위원회 모임

예배후 목회협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6. 담임목사 일정

목회수양회: 12월12일(월)-16일(금)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점심봉사
11월27일	김규현 목사	차경미 집사	차석준 김형기 최승희
12월04일	이수경 집사	차석준 집사	홍윤기 임동재 구자홍
12월11일	김숙진 권사	이수경 집사	안광빈 최승희 김현덕
12월18일	윤문섭 장로	김숙진 권사	최성보 김규현 배제임스
<b>12월안내</b>	김현숙 김은정	<b>12월초분점화</b>	구경숙 안미나



Fresno 후레스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fkumc.net fkumc@fkumc.net

목회자 칼럼

특별한 공동체

독일의 사회학자인 페르디낭 투니에스는 두종류의 공동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게젤샤프트 Gesellschaft”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게마인샤프트 Gemeinschaft”입니다. 게젤샤프트라는 의미는 계약적인 인간관계를 말하는데, 개개인이 각자가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합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게마인샤프트는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속되는 것처럼 상호 친밀하게 결부된 사회를 말합니다. 흔히 게젤샤프트는 이익사회를 말하고,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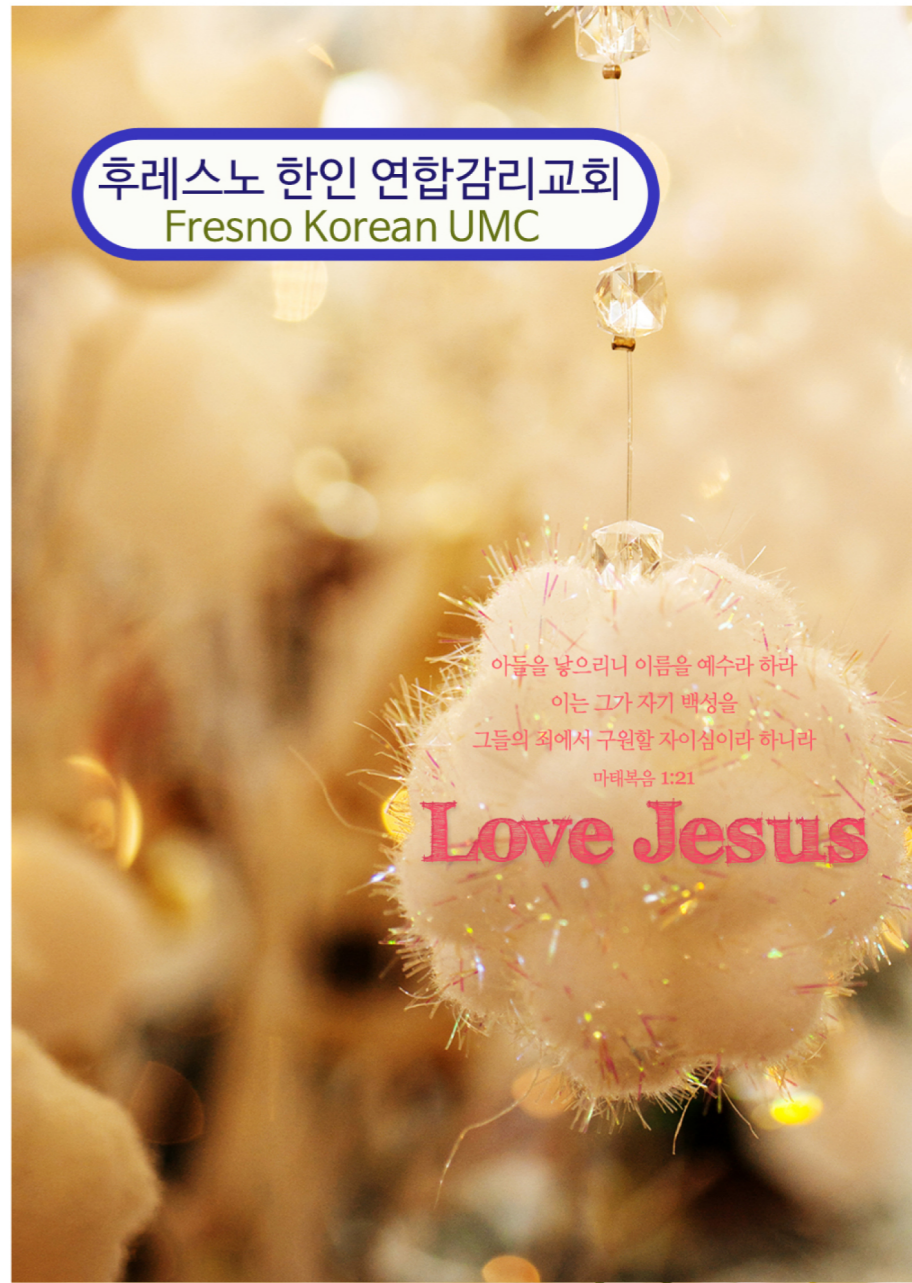
이 두가지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지금 우리들이 속해있는 공동체가 이 둘중 어디에 속해있는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두가지가 섞여있는 공동체도 있기 마련인데, 교회를 우리들이 어떤 공동체일까를 정리하는 것은 제법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익공동체는 결코 교회에서는 안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공동사회, 즉 가족같은 공동체로 정의하면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들이 몸담고있는 교회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동사회같은 게마인샤프트에서 자랐는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게젤샤프트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한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말해, 교회는 조건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이 안에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익과 분배 그리고 주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저의 이 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은 게젤샤프트가 게마인샤프트를 거의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우선되고 결과만을 평가하다보니, 무한경쟁과 개인이익 우선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들에게 닥친 또다른 어려움입니다.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고난과 고통으로 대변되는 종말론적인 상황에 몰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 우리들이 결정할 것은 계속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원칙에 순종해야하는 게젤샤프트적 관점에서 살아갈지, 아니면,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게마인샤프트, 이익과 조건을 포기하고 그저 삶의 의미에 무게를 둘지를 결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게마인샤프트로 살아갈 것을 결정하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의식과 삶이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굉장한 결단은 우리의 삶에 중심에 예수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심에 복음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굉장한 결단이었나 싶죠? 그런데, 삶이 그리 살아야 한다면 다릅니다. 포기할 것도 많고, 생각보다 부족한것에 만족해야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들이 꿈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공동체입니다. 대표적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후레스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Fresno Korean UMC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Love Jesus

예수님의 제사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 Worship	찬양팀	
❖ 입례송 Anthem	다함께	22장 (통26장)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김규현 목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막 13:24-37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기다림 1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455장 (통507장)
❖ 찬양 Hymn	다함께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 축도 / Benedicton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1.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영적갱신,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2.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3. 교회리더들을 위해: 모든 직분자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4. 교회학교사역과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
  5.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6.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7. 교인들 사업장을 위해
  8. 후레즈노 교회 주중사역을 위해
  9. 이용숙 집사 수술회복을 위해
  10. 김덕수 목사를 위해
- 11월 생일자: 김보흠 (11/10) 김용열(11/11) 윤문섭(11/22) 임혜린(11/8)
- ❖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와 중보기도회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016년 성경공부  
예수님의 사람

지난주 헌금 통계

주일헌금	김형기 김현숙 교회학교 무명
감사헌금	김현덕 김미아 김형기 김현숙 안광빈 안미나 이하늘 한순옥
십일조	양정식 이수경 장여심
추수감사	구자홍 구경숙 김규현 홍윤정 김형태 김숙진 김혜진 안윤지 윤문섭 임경희 이명길 이명희 조옥화 최승희 최미란 홍윤기 김의숙
기타	합계 \$3,070.00

예배안내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바울서신 강해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예수님의 사람 회의실
주일예배	낮: 12시30분 저녁: 7시	교회력설교 주일저녁 찬양예배
토요일아침성경공부	아침 7시	예수님의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토요일 새벽기도회

Let's pray!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 에베소서 1장 17-19절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은 다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이 말씀으로 기도해보십시오. 결코 위약은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뤄지도록 믿음으로 선포할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받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너희라는 단어 대신,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보세요)

12월 행사안내

1. 12월 17일 (토) : 칼-네바다 연회 감독 교회 방문
2. 12월 25일 (주일) : 성탄축하특별예배
3. 12월 31일 (토) : 송구영신예배
4. 1월 1일 (주일) : 신년예배